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 비교

강 창 숙*

A Comparative Analysis on High School's National Travel Geography Curriculum in Korea and China

Kang, Chang-Sook*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이다. 여행지리는 지리교과의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과목의 목표와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등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이라는 주제와 형식으로 교실 수업에서 지리교과의 유용성, 흥미,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양국의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을 토대로 여행지리와 관광지리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 여행지리 교과서의 편찬과 성공적인 교실 수업 실행에 구체적인 시사점이 될 것이다.

주요어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여행지리, 관광지리.

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ly developed curriculum of Travel Geography as the career elective subject in high school fo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Korea and Tourism Geography in China. Travel Geography Curriculum comprises subject objectives, the contents organization, and achievement standards which reflect the core concept of geography. It utilizes travel as the topic and frame to raise the availability, interest and empathy in the geography classroom.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subject character, goal, content, teaching-learning method and assessment of the national geography curriculum in Korea and China.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r textbook compilation of the Travel Geography and its Practice classroom teaching-learning.

Key Words : 2015 revised curriculum, high school, career elective subject, Travel Geography, Tourism Geography.

1. 서론

이른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가 신설되었다. 여행지리는 교수요목기 이후 지리 I-지리 II, 자연지리-인문지리,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 등의 체제로 구성되어 온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 편제에서 처음 시도되는 과목이다.¹⁾ 여행지리는 세계화 시대에 양적, 질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여가 생활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및 창의융합적인 미래 인재 양성의 교육적 요구를 실용적이고 실천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과목이다.

최근 교육과정의 개정은 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라는 방향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여행지리는 처음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다. 여행지리는 신설

과목이지만,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실제 개발 시간이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1~2명으로 구성된 극소수의 연구진은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형식적, 절차적 과정 및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 그의 변경 그리고 확실적인 교육과정 문서 체제 준수의 요구 등에 많은 역량을 소진하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을 것이다.²⁾

이렇게 여행지리 과목의 신설과 교육과정의 개발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지리교육에서 여행지리 과목과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광과 여행 관련 내용을 지리과목에서 강화하고 과목명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류재명, 2002; 우기서, 2002; 이희용, 2002). 당시의 논의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gaia2004@cbnu.ac.kr)

는 주로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명 변경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지만(김학희, 2006), 2007 개정 지리 교육과정부터 ‘여행’ 관련 내용은 단원명으로 명시되거나 주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왔다.

교육부의 2015년 교육과정 개정 결정에 따라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에서는(구정화 외, 2014), 학생들이 계열별로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 선택 과목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리과는 계열별로 각각 ‘환경과 문명’, ‘풍경과 문화’, ‘세계여행지리’ 과목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행’은 기존의 세계지리와 관련하여 과목 신설이 구상되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역사과를 제외한 사회과에서 제시된 ‘진로 선택 과목’은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의 3개 과목으로 개발, 고시되었다(교육부, 2015).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교육과정의 국제비교가 이루어진다. 교육과정 국제비교는 두 가지로 대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과정 개정 시작 시점에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대상국가(들)의 교육과정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의 쟁점과 해결 방안,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에 관한 국제비교이다(박순경, 2000).

여행지리는 신설 과목이지만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국제비교는 물론 교과교육적 차원에서 과목의 성격이나 특성, 교과서 내용구성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시간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연구진의 남다른 역량과 그동안 지리교육계에서 축적된 논의의 토대로 비교적 온당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지만, 교과서 구성과 교수-학습 방법이나 자료 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들이 시급하다.

각 국가는 해당 국가의 역사성이나 특수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국제표준 교육과정을 적용, 활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시사

점을 얻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러한 특성은 교육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변화의 추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 국가 내에서 그 국가의 내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제적 변화와 흐름을 국가 교육과정에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김사훈 외, 2014).

우리의 교육과정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교육 외적인 요구이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내적인 요구 모두에서 필요하다. 지리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의 개선과 실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폭넓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것이 근본 과제이다.

지리교과에서 우리나라의 여행지리와 유사한 과목이 개설된 사례는 영국과 중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중등교육 GESE 레벨에서 ‘Travel and Tourism’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고, GNVQ 과정에서도 ‘Leisure & Tourism- Intermediate/Advanced’ 코스가 시행되는 등 여행지리(Travel Geography) 및 관광지리(Tourism Geography)는 영국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학희, 2006).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 분과 학문으로서 관광지리학(Tourism Geography)은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 실시 이전의 모택동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지리학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초기 인력이 배출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관광의 활성화는 국가와 지역의 주요 수입원으로 지대한 공헌을 함에 따라 관광자원의 계획과 대학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스템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Bao JG and Ma LJC, 2010).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반 고등학교 필수 선택 과목으로 ‘관광지리’가 개설,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을 배경으로 최근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 개혁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 과정표준’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택 과목 중에 관광지리(旅遊地理) 과목이 편제, 실행되고 있다.

중국의 지리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지리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중·일 삼국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양원택, 1997)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다.³⁾ 한·중·일 삼국의 중학교 세계지리 교육 내용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諏訪哲郎, 2008), 한·중·영·미 지리교과서에서 나타난 기후 변화 내용을 비교한 연구(심문숙, 2012)와 같이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중국의 지리교육 내용이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중 양국의 비교 연구는 중학교 지리교과서 일부 영역을 비교한 연구(정동주, 1999; 최운식·윤재욱, 2002)가 주로 이루어졌다. 손용택·형기주(2004)의 중국 지리교과서의 변천과 한국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 이후, 중국의 중등 지리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최병두, 2006; 배수연, 2009; 이지선, 2013). 이들이 분석한 중국의 중학교 지리교과서는 최근의 교육과정인 ‘지리과정표준’에 의거한 실험교과서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전의 교육과정인 교학대강에 의거한 교과서들이거나 필수 교과서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지리교육과정 변천과 ‘지리과정표준’의 구성체계와 그 특징 및 이에 의거한 고등학교 지리 필수 및 선택 과목 지리교과서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강창숙, 2012; 2013).

이처럼 중국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일부 영역의 내용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최근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그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하다. 교과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지리교과서를 분석하더라도 교과서 구성 체계나 내용 조직의 바탕이 되는 지리교육과정을 맥락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 문서나 교과서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지리’와 ‘관광지리’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여행지리 교과서 편찬과 교실 수업이 학습자 활동 중심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실행되는데 필요한 직, 간접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해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국가인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을 비교 교육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여행지리 과목 개설의 배경

고등학교 ‘여행지리’의 배경 학문은 지리학이고, 그중에서도 응용지리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지리학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의 개설의 배경은 ‘여가활동 및 관광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의 대두 → ‘관광지리학’과 같은 배경 학문의 정립과 성장 → 일부 특성과 고등학교 및 대학 수준에서 ‘관광지리학’ 혹은 ‘관광지리’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구성 → 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의 일부 단원 주제나 내용으로 도입 →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 편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광이란 말은 고대 중국의 주나라 ‘주역’에 있는 ‘他國之光華’를 본다는 내용 중 ‘觀國之光利用賓于王’이란 문구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이 있다(김중은·이승곤, 2000). 즉, 고대 중국에서 관광이란 타국을 순회 여행하면서 타국의 실정을 살펴서 자국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고, 동시에 견문을 넓히는 것이라고 보았다(淺香幸雄·山村順次, 1974). 서양에서는 180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Tour, Tourist, Tourism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래의 관광은 상류층 유한계급(leisure class)의 점유물이었으나 현대적 관광은 일반 국민의 보건 향상과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김중은·이승곤, 2000).

오늘날 관광은 산업적 가치를 넘어 사회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영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관광의 중요성은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활발하다. 이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의 관광지리학에서 관광의 의미나 범위는 여가활동에서 관광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휴양(recreation)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신용석, 2005).

개인적인 측면에서 관광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사람들의 이동이므로 여행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관광은 개인의 여가시간 내에서 체험할

동을 통하여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이다. 특히 현대의 관광은 일상 생활권을 떠나 타국이나 타 지역 사람들의 생활, 습관, 문화, 자연 등을 관찰하고 즐기면서 배우는 여가생활의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은 외화가득율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주요 교역 상품이 되었다(김종은·이승곤, 2000). 우리나라는 '89 여행 자율화' 이후 개인차원의 국외 여행이 본격화되었고, 국가차원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과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응용지리학으로서 관광지리학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관심은 1970년대 이후 관광수요의 성장과 더불어 진행되기 시작했다(김시중, 2005). 최근 국가의 문화관광 진흥정책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관광에서의 지리학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관광지리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김종은·이승곤, 2000).

관광현상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움직임의 주체인 관광객(관광객)의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시도된다(김사영, 1998). 즉, 관광분야에서 지리학의 역할은 관광 주체인 관광객의 관광행태, 관광 객체인 관광대상으로서의 관광자원과 관광지에 대한 개념적, 구조적, 체계적 연구 그리고 관광매체인 관광사업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 기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적용하여 관광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다(윤병국, 2012). 이렇게 관광지리(학)는 관광업 종사자와 관광산업과 관광자원 개발(자)을 학습주체로 미래 관광업 종사자를 양성하는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관광지역 개발'을 기본 관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행지리와 차별된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지리교육에 여행 및 관광을 교육과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광과 여행 관련 내용을 지리과목에서 강화하고 과목명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류재명, 2002; 우기서, 2002; 이희용, 2002). 한편에서는 관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와 지리학계의 편견이 존재하며, 관광과 지리교육을 접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

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및 여행 관련 과목의 개설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지리교육에서 관광 및 여행 관련 과목의 개설이나 핵심 교과내용으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고등학교 세계지리의 과목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김학희, 2006). 과목명이나 내용 구성논의에서 드러난 우선적인 문제는 여행(travel)과 관광(tourism)에 대한 편견과 그에 따른 개념의 혼동이었다. 이의 문제는 "여행의 기본적인 개념은 '움직임'으로 관광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고, 여행자는 정착적 성격의 주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위개념은 관광객과 비관광객으로 구분된다. 또한 위락이나 여흥을 위한 관광뿐만 아니라 업무상 출장, 유학, 답사, 세미나 참석 등도 여행에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김학희, 2006).

이에 따라 단순 여흥이나 위락 관광을 여행과 동일시하는 편견을 넘어 관광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보다 개방적인 관점의 '여행'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과목으로서 '여행지리'는 여행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교양 교육으로서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실용적 의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관광관련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길러내는 대학의 관광관련 학과의 직업교육적 성격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 목표이다(김학희, 2006). 지리교육에서 여행지리 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인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 미래 사회 준비의 요구, 배경학문인 지리학에서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성장과 여러 인접학문에서 진행되는 융합적 연구의 확대 등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여가와 관광은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의 산업 및 서비스 사회에서 여가와 관광의 기능은 거주나, 노동, 교육, 공동생활의 기능들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한층 제고되고 있다. 여가와 관광에 대한 수요가 뚜렷해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활공간은 거주지와 생산지 등으로서 수행해 온 역할 이외에 여가 및 관광활동의 수요까지 충족시켜야만 하게 되었다. 또한 여가 및 관광활동의 확대는 여타 산업활동을 유인하는 입지효과를

발휘하면서 국가 및 지역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안영진, 2006). 이렇게 여가와 관광활동을 포괄하는 여행지리는 학습자 개인의 차원에서 지역 사회 및 국가차원에 걸쳐 그 실용성과 교육적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다.

3.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 비교

1) 지리교육과정 편제와 과목의 구성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5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

시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이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었으며,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일반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에서 이수할 ‘보통 교과’의 편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교육부, 2015, 16).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은 탐구영역 사회교과군의 공통과목 ‘통합사회’와 일반 선택 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진로 선택 과목 ‘여행지리’의 4개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다. ‘여행지리’는 탐구영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의 편제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일본어 II, 프랑스어 II, 러시아어 II, 스페인어 II, 아랍어 II, 중국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역 사회교과군의 선택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하며,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1단위는 50분 기준,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고, 각 학교에서는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다(교육부, 2015).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대상 과목에의 해당 여부는 교육과정이나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오랫동안 구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중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리교육의 변화를 수용한 새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지리교육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2001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이하 중국 교육부)는 ‘전일제 의무교육 지리과정표준(실험교)’를 공포하였다. 이는 신중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가 수준의 지리과정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기초지리교육의 개혁이다. 2003년에는 ‘보통고중지리과정표준(실험)’을 공포하여 고급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의 ‘내용표준화’를 통한 개혁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개

혁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교학대강’에서 ‘과정표준’으로 전환된 것은 이른바 ‘National Standards’ 중심의 전 세계 교육과정 개혁 운동과 흐름을 함께 한다. ‘과정표준’ 중심의 개혁은 교과서의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를 수립하고, 새로운 내용지식의 표준을 제시하며, 이에 의거한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사의 교수방법과 학생의 학습방법을 개혁하고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강창숙, 2012).

중국의 고등학교 즉, 고급중학교에서 지리는 사상정치, 역사와 함께 ‘인문과 사회’ 학습영역의 과목으로 3학년 6학기 동안 필수 6학점과 선택학점 I, II를 이수하도록 편제되어 있다(표 2). 이에 의거하여 ‘지리과정표준’에서 필수과목은 지리1, 2, 3의 3개 모듈(각각 2학점, 36시간 이수)로 조직하고, 선택 과목은 선택1에서 선택7에 이르는 7개 모듈(각각 2학점, 36시간 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과정표준의 구성체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2003).

표 2. 중국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학습영역	과목	필수학점 (총점 116학점)	선택학점 I	선택학점 II
언어와 문학	언어	10	사회는 인재 다양화의 수요에 근거하여 학생의 서로 다른 잠재능력과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고, 공통 필수 과목의 기초위에 서 각 과 교육과정의 표준 분류와 단계별로 약간의 선택과목 모듈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학교는 당해지역의 사회, 경제, 과학기술, 문화발전의 수요와 학생의 흥미에 근거하여 약간의 선택과목 모듈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외국어	10		
수학	수학	10		
인문과 사회	사상정치	6		
	역사	6		
	지리	6		
과학	물리	6		
	화학	6		
	생물	6		
기술	기술(정보기술과 통용기술 포함)	8		
예술	예술 혹은 음악, 미술	6		
체육과 건강	체육과 건강	11		
종합 실천운동	연구생학습활동	15		
	사회봉사활동	2		
	사회실천	6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한국의 지리교육과정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춘 교과가 아닌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라는 혼잡하고 정체성이 모호한 체제로 편제되어 있어서 교육과정 구성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⁴⁾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직된 중국의 '지리과정표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중국의 '지리과정표준'은 제1부분 전언(과정성격, 과정의 기본이념, 과정설계방향), 제2부분 과정목표(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감정태도와 가치관), 제3부분 내용표준(지리1, 지리2, 지리3, 선수1 우주와 지구, 선수2 해양지리, 선수3 관광지리, 선수4 도농계획, 선수5 자연재해와 예방, 선수6 환경보호, 선수7 지리정보와 기술응용), 제4부분 실시제안(교학제안, 평가제안, 교과서편찬 제안, 교육과정의 자원적 이용과 발전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국의 '지리과정표준'은 고등학교 지

리교육과정을 통괄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표준'에서 각 과목은 '표준, 활동제안'으로 구성된 표가 제시된다. 과목에 따라 간단한 '설명'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관광지리는 표준과 활동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6).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중국의 지리교육은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지리의 위상은 향상되고 있으며, 그러한 향상의 대표적인 결과가 필수 과목이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역지리 영역의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된 것이다 (Yang, 2011, 137). 나아가 '우주와 지구'에서 '지리정보기술응용'에 이르는 7개의 선택 과목을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하게 되었다. 필수 과목은 자연지리(지리1)→인문지리(지리2)→지역지리(지리3)의 순으로 학습하여 종합학문으로서의 지리과학의 종합성과 지역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강창숙, 2013).

표 3. 고급중학교 '지리과정표준'과 사회과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지리과정표준과 관광지리		사회과 여행지리	
제1부분 전언(前言)	1. 과정성격	성격	
	2. 과정의 기본이념		
	3. 과정설계방향		
제2부분 과정목표	1. 지식과 기능	2. 목표(목표, 교과역량)	
	2. 과정과 방법		
	3. 감정태도와 가치관		
제3부분 내용표준	필수과정	1. 지리 1	3.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체계 나. 성취기준)
		2. 지리 2	
		3. 지리 3	
	선택과정 (選修課程)	선수 1. 우주와 지구	
		선수 2. 해양지리	
		선수 3. 관광지리(표준, 활동제안)	
		선수 4. 도농계획(城鄉規劃)	
		선수 5. 자연재해와 예방	
		선수 6. 환경보호	
		선수 7. 지리정보기술응용	
제4부분 실시제안 (實施建議)	1. 교학제안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법 나. 평가)	
	2. 평가제안		
	3. 교과서 편집 제안		
	4. 과정자원의 이용과 개발 제안		

중국의 고급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의 내용은 지역이 당면한 주제별 지리문제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실제적으로 탐구하는 내용들이며, 학생들의 장래 직업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수과정은 문과와 이과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고, 지리과 선택과정은 문과 학생들만 2개 과목을 이수한다. 선택과정은 각 학교에서 지역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는 데, 예를 들어 연변 지역의 경우는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및농촌전망계획’과 ‘자연재해와 방지’를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강창숙, 2013).

선택 과목은 도시와 농촌, 생산 활동 등 지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을 선택하여 그 각각에 지리학의 이념, 응용, 방법과 기술 등을 적용하여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선택 과목들의 학습 순서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교별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거하여 ‘선택학습 I’과 ‘선택학습 II’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하며, 필수 과목과 동시에 혹은 전후로 이수할 수 있다. 선택 과목들 간의 관계는 평등하며, 오직 학생의 적성, 호기심, 흥미, 장래 발전을 위해 설치된 과목들이다(陳澄 외, 2004). 다만 ‘지리정보기술응용’ 과목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일부 학교는 연기할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2003).

이는 지역성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 미래의 필요와 요구에 의거한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이수 과정으로, 새 지리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강창숙, 2013).⁵⁾

2) 여행지리와 관광지리 과목의 성격

2015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교육부, 2015).

“여행지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지리 과목 중 하나로서의 성격에서 출발한다. 즉 지리교육의 교과역량이라 할 수 있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지리적 관찰

력과 감수성, 지리적 의사 결정과 상상력, 탐구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기르고자 한다. 하지만 여행지리라는 과목명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리 교과에 현대인의 삶과 여가 생활 속에서 갈수록 그 의미가 커지고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 및 형식을 결합하고 확장한 것이다. ... 따라서 여행지리는 지리 교과가 추구해 온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더불어 여행이라는 주제와 형식을 빌려 현재 및 미래의 직·간접적 여행자가 될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 우리나라, 다른 문화권 전 지구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고 개인 및 공동체의 행복과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공감 능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상상력, 소속감, 사회참여 능력, 진로 탐색 능력 등을 기르고자 한다.”

즉, 여행지리는, 지리교과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행’이라는 주제와 형식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지리적 의사 결정과 상상력, 탐구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함양’하여 지역, 국가,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학생들의 현재 및 미래 삶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 및 가치와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이다.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은 ‘목표’에서 제시되는 목표와 교과역량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상 여행지리 과목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교육과정의 ‘2. 목표’에서 제시하는 목표 즉, 총괄목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교과 역량’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여행지리는 현대의 삶과 여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여행 및 관광 현상에 직면하여 현재 및 미래의 직·간접적 여행자가 될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바람직한 여행의 의미를 성찰하고 여행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공공선에 기반을 두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에 맞는 여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연 환경, 자연과 인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 세계와 지역 간 관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 조직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토대로 통합적 탐구력,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 환경과의 만남에서 요구되는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상상력, 다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인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공동체 의식 및 공동체에의 참여 능력 등을 기르고자 한다.”

여행지리에서 기르려는 교과 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의미 있고 바람직한 여행에 필요한 지식 기 능, 가치 및 태도를 익힘으로써 통합적 탐 구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른다.
- 나. 국내 및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별 자 연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과 그곳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존중배려 그리고 소통과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다. 여행의 특성과 그 변화를 통해 현대사회의 특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 자신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진로 탐색 능력,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 처음 제시되는 교과와 핵심역량으로서 ‘교과 역량’의 의미와 기능은 여전히 명료하지 않지만,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으로 설명되고 있다(이광우, 2014). 지금까지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의 목표 분류학에 근거한 목표 진술과는 달리, 교과와 목표나 교과 역량이 세 가지로 분류되던 목표와 탐구력, 사고력 등과 같은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과 역량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다의 항목별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관광지리’ 과목의 성격은 ‘여행지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지리 과목 중의 하나이지만, 필수과정인 인문지리(지리2)의 하위 과정으로 인문지리 영역의 내용들과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과목이다. ‘관광지리’가 고등학교 지리 과정에 있어서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袁书琪, 2005). 즉, 관광지리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중국이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관광산업이나 관광지역 개발을 위해 관광에 대한 지리적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모듈은 7개의 고등학교 선택과정 중의 하나인 ‘도농(도시와 농촌)규획’ 모듈과 같이 인문지리 하위 과정에 속한다. 고등학교 지리필수 과목은 경제지리, 인구지리, 촌락지리 등 인문지리 하위 내용에 걸치며, ‘도농규획’ 과목과 같이 인간 활동의 물질측면에 편중된다. ‘관광지리’ 모듈은 인간 활동의 정신측면에 편중되고 상기 내용과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다. ... 인류 사회의 경제문화가 발전되면서 사회생활은 풍족한 생활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관광활동도 날로 대중화된다. 현대사회의 관광활동은 단순한 소비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소양을 높이는, 노동력 재생산 실현의 중요한 활동이다. 관광업은 ‘무연산업’으로 경제성장모형의 전환, 사회생산의 실현, 생활구조의 조정의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진다. 유망산업으로 관광업이 발전하는 데에 여러 가지의 연구할 만한 문제도 생겼다. 세계관광조직의 예측에 따라 중국은 2020년에 세계적으로 최대한 관광목적지가 되고 2050년에 세계적으로 최대한 관광객 근원지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교육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다...”

관광지리 과목의 목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지리과정표준’ 제1부분 전언의 도입부에서 고급중학교 지리교육의 목적에서 포괄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구, 자원,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리 인식과 사회적 상호협조 기초로 지속발전 관념을 수립하여 문명 생활과 생산방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지리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지리적 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하여 도시의 고급중학교 지

리과정개혁을 도전적인 새 과제로 제출한다.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질교육에서는, 학생의 전면 발전과 종신학습의 출발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현대교육이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지리과학의 발전을 반영하여 사회의 생산생활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것이 고급중학교 지리과정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전 지구적 문제가 곧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의 건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리적 문제임을 알게 하고, 과학정신과 인문정신을 배양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 능력을 기르며,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인구, 자원, 환경, 사회적 상호협조의 지속발전 관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부여된 고급중학교 지리 교육의 사명이다.”

고급중학교 지리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 지구적 문제가 곧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의 건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리적 문제임을 알게 하고, 과학정신과 인문정신을 배양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 능력을 기르며,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인구, 자원, 환경, 사회적 상호협조의 지

속발전 관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한 목표 역시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감정태도와 가치관의 세 가지 과정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표 4>와 같다(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2003).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과목의 공통된 성격은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점이고, 고등학교 지리 과목의 하나로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리과정표준의 ‘3. 과정설계방향’에서는 “보통고급중학교 지리과정은 학생들의 직업(지학, 환경, 농림, 수리, 경제, 관리, 신문, 여유, 군사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선택 과목을 4학기(2과목) 이수해야 한다.”고 그 특징을 명시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2003). 말 그대로 ‘학습자의 삶을 위한 지리(geography for life)’라는 철학이 적극 반영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Yang, 2011).

표 4. 고급중학교 내용표준에서 제시되는 과정목표

<p>一. 지식과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와 우주환경의 기초지식을 획득한다; 인류의 생존 환경으로서 자연지리 환경의 주요 특징과 자연지리 환경 각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한다. 2. 인류활동에 대한 지리적 환경의 영향과 인문지리환경의 형성과 특징을 이해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와 주요 방법을 인식한다. 3. 지역차를 인식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지속발전과 당면한 주요 문제 해결방안 이해한다. 4. 독립적 혹은 협동적으로, 지리규칙, 지리실험, 지리조사를 실시한다; 지리 도표와 지리 통계를 읽고 분석하며 이용하는 기능을 익힌다.
<p>二. 과정과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 활용하며, 항상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지리 정보를 정리, 분석하고 지리정보를 지리 학습 과정에 적용하도록 한다. 2. 학습과 생활 중에 나타나는 지리문제의 탐구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조사 연구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3. 적당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고 교류하며, 자신의 지리학습과 탐구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성과를 발표한다.
<p>三. 감정태도와 가치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진리 탐구 정신과 실재를 탐구하는 과학적 태도를 기르고, 지리적 심미감과 흥미를 함양한다. 2. 중국의 기본적인 지리적 국가정세 및 환경과 발전의 현상과 추세에 관심을 가지며, 조국 사랑과 향토 사랑 정신을 증진한다. 3. 전 지구적 환경과 발전문제 및 국제협력의 가치를 이해하며, 기초적이고 올바른 전 지구적 의식을 형성한다. 4. 자원과 환경에 대한 보호의식과 준법의식을 증진하고, 지속발전 관념을 형성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하고, 건전한 행위습관을 기른다.

3) 여행지리와 관광지리의 내용체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즉, 여행지리의 내용체계는 6개의 영역과 27개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1개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⁶⁾

심승희(2015)에 의하면, 고등학교 지리과목의 하나로서 여행지리의 각 영역별 성격은 네 가지로 구분한다. 즉,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는 지리인식에 관련된 영역이고,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관련된 영역이며,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은 인문환경과 인간생활에 관련된 영역이고 나머지는 지속가능한 세계와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마지막 영역의 내용 요소에서 ‘미래 세계와 여행’은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영역에 포함시키고, 영역은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지리 교과목의 주요 개념이나 인식에서 벗어나 좀 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나 인식으로 전환, 확대하여 ‘다양한 여행 산업과 직업 탐색’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여행지리 과목의 목표에서 제시되는 교과 역량은 내용체계의 각 영역과 내용 요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가’항의 교과 역량은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나’항은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과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영역에서 구현되고 있다. 마지막 ‘다’항은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여행지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영역에서 구현되고 있다. 물론 교과 역량은 6개 영역 모두에 걸쳐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중국 관광지리 교육과정은 4개의 영역과 13개 하위 내용으로 구성된 ‘표준’과 그의 활동에서의 유의점인 ‘활동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2003, 10).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즉 내용표준은 ‘관광자원의 유형과 분포, 관광자원의 종합평가, 관광규칙과 관광활동 설계, 관광과 지역발전’의 4개 영역이다. 중국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인문지리학의 주요 주제는 인구, 상업, 공업화, 정치, 취락, 관광, 문화다양성(언어, 종교, 전통과 현대문화) 등이다(Tang,

표 5. 여행지리의 내용체계

영역	내용 요소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의 의미와 종류 •교통수단과 여행 방식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 •여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안전 여행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의 관광적 매력 •지형과 인간 생활 •기후의 관광적 매력 •기후와 인간 생활 •지구환경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우리나라의 자연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지역 •세계 문화 유산 •문화 전파와 변동 •촌락여행과 도시여행 •우리나라의 문화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유산과 기념물 여행 •인류의 공존과 봉사여행 •생태, 첨단, 문화도시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 산업과 지역 •책임 있는 여행 •공정여행, 대안여행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 산업 •여행 관련 직업 •미래 세계와 여행 •진로 탐색

표 6. 중국 관광지리 교육과정

표준(标准)	활동제안(活动建议)
<p>1. 관광자원의 유형과 분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관광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자료 활용 ●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의 구별 ● 중국의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지도상의 위치와 가치 설명 <p>2. 관광자원의 종합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경관의 감상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 ●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유명한 관광지역의 경관특징을 설명하고, 그의 형성원인을 지리적 각도에서 설명 ● 관광자원개발조건과 평가에 대한 기본내용을 간단히 설명 ● 실제 사례를 모델로 관광자원개발조건을 평가 <p>3. 관광규칙과 관광활동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역의 기본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영향을 분석하고, 관광지역의 특징을 바탕으로 교통과 시설규칙의 초보적인 설계 ● 학생이 관광정보를 수집하고, 관광자원 상황을 근거로 관광지점을 확정하고 합리적인 관광노선을 선택 ● 지형, 기후, 수문 등 관광안전에 관계되는 조건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안전방법대책 수립 <p>4. 관광과 지역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에 따라 발전하는 사회, 경제, 문화의 작용을 간단히 설명 ● 관광과 경관건설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사례를 들어 설명 ● 관광개발과정과 환경보호 대책을 사례를 들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와 중국의 관광지역 자료 수집하고 학급에 전시 교류. ● 학생의 관광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경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교류. ● 관광지역에 대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광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모의관광활동을 설계. ● 국내 ‘1일 관광’ 실천을 계획. ● 학생이 주도하는 ‘관광안내’ 활동 체험. ● 관광지역의 안전시설 토론. ● 국내 실제 지역을 사례로 관광주제에 대해 토론. ● 학생들의 여행기, 촬영사진, 여행기념품 등을 전시, 교류.

2007).

필수 과목 지리2에서는 인구, 도시화, 농업, 공업, 교통을 학습주제로 과목을 구성했다면, ‘관광지리’는 전통적인 주제인 ‘관광’을 심화·확대하여 인문지리 영역의 새로운 과목을 개발한 사례이다. 주요 학습내용은 관광자원, 관광경관 감상법, 관광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등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벗어나 경관의 감상방법과 생태관광객 등 학습자의 구체적인 이해와 실천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구를 강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극대화한 인문지리 영역의 응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강창숙, 2013).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인민교육출판사 과정교재연구소와 지리과정교재연구개발센터에서 공동으로 편찬하고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조선어로 번역한 ‘관광지리’ 교과서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⁷⁾

관광지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은 4개 영역이지만, 실제로 교과서는 5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표준에서는 관광자원과 관광활동 및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대학의 관광지리학 내용에 기초한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과서 단원은 관광의 개념적 이해, 관광자원, 관광경관, 관광개발과 환경보호, 관광객의 태도 등 미래 관광객으로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주제로 구성되고 있다.

중국의 관광지리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우리가 언어야 할 시사점은 ‘제3장 관광경관의 감상’ 단원의 구성이다. 모든 여행자는 여행지에서 가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관이나 풍경에서 얻는 ‘심미성’을 체험하는 것이 여행의 주된 의미이고 목적이다. 현재와 미래의 여행자가 될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지역 경관’의 심미적 특징과 그의 감상방법을 학습토록 하는 것은 여행지리 과목에서 특화되어야 한다. 이는 여행지리의 주요 교과 역량인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함양은 물론 인간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토대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더불어 지구촌 환경과 공존하는 삶의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지리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표 7. 보통고급중학교과정표준실험교과서 ‘관광지리’ 단원 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내용 요소
제1장 현대관광 및 그 역할	제1절 현대 관광	1. 관광의 발전 및 현대관광의 특징 2. 현대관광의 기본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주체의 대중화 ● 관광형식의 다양화 ● 관광공간의 확대화 ● 관광목적의 오락화
	제2절 지역발전에 대한 현대관광의 의의	1. 경제발전에 대한 촉진적 역할 2. 사회문화의 번영에 대한 촉진적 역할 3.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광업 ● 국내관광업 ● 관련 산업 ● 지역경제 ● 국민자질 및 생활의 질 제고 ● 대량의 취업기회 ● 문화교류 촉진
제2장 관광자원	제1절 관광자원의 유형 과 특성	1. 관광자원의 내포 2. 관광자원의 유형 3. 관광자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 비법성 ● 창조성 ● 영속성
	제2절 관광자원개발 조건에 대한 평가	1. 자원의 가치 2. 지리적위치와 교통 3. 관광객시장 4. 기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학적 가치 ● 과학적 가치 ● 역사문화적 가치 ● 경제적 가치
	제3절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	1. 풍부하고 다채로운 관광자원 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제3장 관광경관의 감상	제1절 관광경관의 심미 적 특징	1. 자연미 2. 인공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상미 ● 색채미 ● 동적미 ● 몽롱미
	제2절 관광경관의 감상 방법	1. 감상위치선택 2. 감상시기의 파악 3. 경관특색의 포착 4.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깨달아야 한다 5. 정감으로 풍경을 감상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 각도 ● 동적상태
	제3절 중외의 유명한 관광경관에 대한 감상	1. 황산풍경명승지 2.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풍경구 3. 중국 운남의 윈양다락발풍경구 4. 프랑스 파리 세느강변의 고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승 ● 괴석 ● 구름바다 ● 은천
제4장 관광개발과 보호	제1절 관광전망계획	1. 관광전망계획의 기본내용 2. 관광풍경구 전망계획설계	
	제2절 관광개발에서의 환경보호	1. 관광개발에서의 환경문제 2. 관광환경수용력 3. 관광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입법과 관련 정책, 법규 제정 ● 환경보호구역 건설 ● 관광환경보호교육의 보급 ●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 금지 ● “녹색”의 6개 관광요소 제창
제5장 자극 있는 현대관광객 이 되자	제1절 관광활동설계	1. 관광객의 여행 소망과 능력에 대한 파악 2. 관광지의 정보에 대한 수집 3. 관광목적지를 확정하고 관광 코스를 선택 4. 관광안전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선택한다 ● 거주지 환경과의 차이가 비교적 큰 관광지를 선택한다 ● 최소 관광시간비율을 선택한다
	제2절 관광환경보호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객이 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파괴 ● 환경오염 ● 정상적인 사회질서에 영향

이 책의 지도기호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웹사이트

여행지리에서 명실상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주제이다.

여행지리 내용체계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영역은 관광지리에서는 단원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은 물론 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에 매우 유용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여행 산업, 여행 관련 직업, 미래 세계와 여행, 진로 탐색은 학습자 활동 중심의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단원으로 구성되면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완성하는 단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단원은 ‘그 범위를 지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양적 분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다. 여행지리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크게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가.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과 ‘나. 평가: 평가 방향, 평가 방법, 유의 사항’으로 위계화, 상세화 되어 진술되고 있다.

여행지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이 상세하게 진술되고 있지만,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과 역량인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의사소통 능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여행지리의 학습 범위를 지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미래학 등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도록 하는 것은 교과와 특성을 실행하는 주요한 교수·학습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인 여행

지리는 일반 선택 과목인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과의 계열성 및 연계성을 고려’할 것과 ‘학습자 주도, 학습 과정 중심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가 방향’에서는 ‘단순한 사실적 지식의 습득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고, 여행지리 과목에서 기르고자 하는 교과 역량이 성취될 수 있거나 그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열정과 효과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진로탐색 과정에서 자기성장에 대한 성찰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가 방법’에서는 지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별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준거 지향 평가 및 질적 평가를 지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관광지리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과목의 성격이나 특성보다는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지리과정표준’의 제4부분 실시제안의 ‘교학제안’에서 지리과목 전체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이나 방향은 ‘평가제안’에서 제시되고 있다.

‘교학제안’에서는 지리교사가 교수·학습 시간을 충분하게 설계하고, 고급중학생의 심리발달단계와 각기 다른 학습요구 등을 고려하고, 자기주도학습(自主學習), 협동학습(合作學習), 탐구학습 등의 학습방식을 활용하여,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지리학습, 합작교류, 비판적 사고로 지리문제를 분석,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설명한 후,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5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제안’에서는 ‘지리 학습 평가는 지식과 기능의 평가를 기초로, 학생의 가치판단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사회적 책임감 등의 능력 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임을 개관 설명하고, 일종의 평가 준거 사항을 5개 항목으로 제시, 설명하고 있다. 즉, “① 지리적 지식의 이해와 응용에 대한 평가 ② 지리적 기능 형성과 응용에 대한 평가 ③ 지리과학의 방법의 습득과 탐구활동에 대한 질적, 양적 평가 ④ 감정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대한 평가 ⑤ 평가형식의 다양화와 정확성을 중시” 등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편집제안’에서는 교과서 편집은 지리과정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충분히 고려하되 교과서의 다양화를 실현할 것이며, 교사는 교과서를 창의적이고 학생주도 학습의 중요자원으로 사용할 것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과정자원의 이용과 개발 제안’에서는 지리과정 자원의 충분한 개발과 합리적 이용, 지리과정 내용의 풍부한 활용, 지리수업의 활력 증진이 중요한 의무임을 설명하면서, “① 학교에서는 각종 지리과정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② 이를 충분히 활용하며 ③ 교외 지리과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강창숙, 2012).

학교 교육이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탐구중심의 학습활동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탐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 또한 관련 영역에 대한 이해까지 확장시킨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학습자에게 특정 학습내용을 학습하여야 하는 이유와 학습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관련성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과의 관련성이 높아야 개인적인 흥미나 동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지식수준에 맞는 문제나 프로젝트를 제공해 능동적으로 추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개발(김성일, 2003)이 여행지리 교수·학습 방법이나 방향을 모색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여가활동의 주류를 이루는 스포츠,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여가활동은 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지며 취미활동이나 기타 동호회 활동으로 이어져 평생 동안 학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이 이들 예체능 교과목을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주요과목이라고 하는 수학의 선택비율에 훨씬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성일, 2003). 이처럼 동일한 활동을 학교에서 배우면 재미없어지는 주된 이유는 평가체계에서 기인한다. 동일한 기준을 놓고 수행을 비교 평가하면, 당연히 개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학습자는 무능감이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내재동기가 박탈될 수도 있다(김성일, 2003, 156).

그러므로 여행지리 평가의 방향과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전향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검토, 개발되어야 한다. 교실에서 학습자의 상황을 근거로 평가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제한된 총괄평가가 아닌 수행과제에 따른 형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습자의 발전이나 숙달 정도의 향상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편제와 과목의 구성, 과목의 성격,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측면에서 비교한 내용 항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의 비교

교육과정		여행지리	관광지리
편제와 과목의 구성	편제	선택 중심 교육과정	필수 및 선택 교육과정
	대상	· 고등학교(문·이과 통합) 진로 선택 과목	· 고등학교(문과) 필수 선택 과목
	지리과목의 구성	·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의 삼원적으로 구성된 4개 과목	· 필수과목(3개)과 선택과목(7개)의 이원적으로 구성된 10개 과목
	과목 특성	· 고등학교 지리과 과목의 하나 · 공통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와 계열성과 연계성을 고려 · 장래 ‘진로’탐색을 위한 선택 과목	· 고등학교 지리과목 · 필수 과목인 인문지리(지리2)의 하위과정으로 계열화 · 장래 ‘직업’을 고려한 선택 과목
이수단위	· 5단위(3단위 증감) · 최소 34시간, 최대 136시간	· 2학기 36시간	

교육과정		여행지리	관광지리
성격	목적	·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되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고등학교 교육 목표로 대체	· 고급중학교 지리교육 목적에 기초
	목표	· 여행지리 과목의 목표와 교과역량	· 고급중학교 지리교육 목표에 기초
내용 체계	내용체계	가. 내용체계(6개 영역, 27개 내용요소) 나. 성취기준(21개 성취기준)	· 표준(4개 영역과 13개 하위 내용) · 활동제안(8개 항목)
	조직	· 계통지리적 주제·개념에 기초한 핵심개념과 핵심역량 중심	· 계통지리적 주제·개념 중심
	교수·학습 방향	·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과 특성에 근거한 교수·학습 방향, 방법, 유의 사항을 제시	· 고급중학교의 지리교육 목표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5개 항목 제시
	평가 방향	·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과 특성에 근거한 평가 방향, 방법, 유의 사항을 제시	· 고급중학교의 지리교육 목표에 기초하여 평가 준거 사항 5개 항목 제시

4. 결론

여행지리와 관광지리는 ‘학습자의 미래 삶을 위한 지리’라는 철학이 적극 반영된 고등학교 지리 과목의 하나이며, 학생들의 진로나 직업 선택을 직접적으로 탐색하는 특성을 가진 과목이다. 여행지리는 현재와 미래의 여행자가 될 학생들을 위해 지리교과의 교육내용을 여행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관광지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관광자원, 관광경관, 관광지역 개발 등의 전통적인 주제에 초점을 두는 관광객이 되도록 하는데 한정되고 있다.

여행지리와 관광지리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서 여행지리 교과서 편찬과 교실 수업 실행에 주는 시사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편제와 과목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여행지리는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일반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선택할지 알 수 없는 ‘자율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편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이수단위 증감의 폭이 지나치게 커서 교과서 단위 구성의 범위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고등학교에 개설된 4개의 지리 과목들과의 계열성이나 연계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여행

지리 과목만의 문제가 아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차원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지리교과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은 과목의 목적과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형식상의 요건이지만,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서 제시되는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행지리의 교육의 목적을 정향할 필요가 있다. 여행지리 과목의 목표가 교과 역량과 함께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복되거나 위계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교과 역량은 그동안 ‘3개의 행동영역별 목표’로 제시되던 방식과는 다르게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지리적 관찰력 등의 역량이 각 항목에서 혼합되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은 물론 교실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수업하는 과목인가를 명료하게 인식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차후에 진행되는 교과서 개발의 차원에서 과목의 성격, 목표, 교과역량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체계는 ‘여행’을 주제와 형식으로 6개 영역, 27개 내용요소, 21개 성취기준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성취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계통지리적 주제와 개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교과서 구성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 사례를 학생들의 직, 간접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관광지리학은 물론 여러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나 접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말 그대로 창의융합적인 내용 구성을 도모함은 물론 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이 다양한 관점과 다차원적인 지역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리교과의 학문적 특성과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주

- 1) 그동안 유사 과목이라 할 수 있는 관광지리(학)가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나 대학의 관광관련 학과에서 필수 혹은 선택 과목으로 개설, 이수되어 왔지만 ‘여행지리’는 처음이다.
- 2) 2014년 12월경부터 1차 연구가 시작된 ‘여행지리’ 교육과정 개발자인 심승희(2015)에 의거하면, “여행지리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은 1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초안을 마련한 다음, 교육부가 주관한 세 차례의 통합 워크숍, 전체 지리영역 연구진이 진행한 수차례의 교차 검토회, 지정토론자가 참여한 공개토론회, 그리고 여행지리 연구진이 진행한 네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2015년 6월 초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되고, 6월 이후부터 1명의 연구진이 보강되어 교수·학습과정 및 평가 중심으로 2차 연구가 시작될 예정”으로 진행되었으며, 9월에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되었다.
- 3) 한편 교육관련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연구 기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이해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한국교육개발원, 2001)나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정책을 살펴보거나(오만석 외, 20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각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정영순 외, 2003; 손용택·형기주, 2004) 등에서 중국의 지리교육과정이나 지리교과서 관련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관련 내용의 왜곡 실태 파악, 중국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정책이나 동향 등을 살펴보는 연구의 일부로 지리교육과정이나 지리교육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물은 형식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연구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동안 지리교육계에서 널리 공유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강창숙, 2012).
- 4)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3-4학년, 5-6학년)와 중학교(1-3)에 해당하는 ‘사회’는 ‘공통 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의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공통 과목’이다(교육부, 2015, 1). 즉,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기본 성격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일단 고

등학교의 ‘공통 과목’은 공통으로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누가 공통으로 선택하는지를 규정하는 선택의 주체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 5) 이것을 중국에서는 “중국 교육부는 2001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국가교육과정, 지방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3급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이는 세계화 및 지식경제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적 특색, 민족적 특색을 모색하고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김혜영, 2014).
- 6) 성취기준은 여행지리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영역과 내용요소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것이다. 즉, 성취기준은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이 통합된 것으로, 학생들이 해당 영역(단원)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와 달리, 성취기준 다음에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진술되고 있지만, 여행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까지 제시되고 있다.
- 7) 현재 중국의 고급중학교 지리교과서는 人民教育出版社(人教版)를 비롯, 中國地圖出版社(中圖版), 上海教育出版社(上教版) 등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것들이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다. 이른바 인교판은 주로 안휘성, 길림성, 해남성, 복건성, 광둥성, 료녕성, 하남성 등의 지역에서 중도판은 광둥성, 산서성, 천진, 산둥성 등에서 상교판은 절강성, 호남성, 흑룡강성 등의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해당 성 전체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강창숙, 2013).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한 지리교과서는 오랫동안 지리교과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해 왔고, 최근 몇몇 출판사들이 등장했지만 인교판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지리교과서를 대표할 수 있다(Yang, 2011).

문헌

- 강창숙, 2012, 중국의 지리교육과정 변천과 지리과정표준의 구성체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217-231.
- 강창숙, 2013, 중국의 고급중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체계와 정합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181-200.
- 교육부,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4).
- 구정화 외, 2014, 문·이과 통합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 교육부.
- 김사영, 1998, 지리학적 패러다임에 준거한 관광

- 지리학 연구영역의 고찰(1), 관광지리학, 9, 153-163.
- 김사훈·이동엽·이영아·백경선, 2014,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국제비교 연구: 우리나라와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24(4), 157-179.
- 김성일, 2003, 교육적 여가와 여가적 교육: 학습환경으로서의 여가환경과 활동중심의 흥미로운 교육, 한국교육학연구, 9(2), 143-162.
- 김시중, 2005, 관광지리학의 연구영역과 과제, 지리학연구, 39(3), 361-369.
- 김재관, 1998, 관광지리학의 교과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관광지리학, 8, 55-72.
- 김중은·이승곤, 2000, 관광에서의 지리학의 역할과 접근방법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5(2), 365-372.
- 김학회, 2006, 세계지리에서 여행의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3), 231-250.
- 김혜영, 2014, 중국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인문논총, 71(4), 269-300.
- 류재명, 2002,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27-40.
- 박순경, 2000,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의 경향 및 쟁점 분석, 교육과학연구, 31(3), 69-86.
- 배수연, 2009, 중국지리교과서의 구성체제와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용택·형기주, 2004, 중국 지리교과서의 변천과 한국관련 내용: 1987년 이후 중고교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 신용석, 2005, 영미 관광지리학의 변천에 대한 통시적 고찰: 연구접근법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0(4), 387-401.
- 심문숙, 2012, 중등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교육 내용 국가별 비교 연구: 한국, 중국, 영국,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승희, 2015, 고교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안영진, 2006,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 발전과정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1), 123-137.
- 양원택, 1997, 한·중·일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만석 외, 2003, 주변국가의 한국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연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우기서, 2002, 지리는 지리책으로, 지리교사가 가르치자: 유익한 지리교육을 위하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87-94.
- 윤병국, 2012, 2000년 이후 국내 관광지리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관광연구저널, 26(1), 131-148.
- 이광우, 2014,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교육부 외, 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합동 워크숍 자료, 24-46.
- 이지선, 201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용, 2002,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제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77-85.
- 인민교육출판사 과정교재연구소·지리과정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2009, 보통고급중학교과정표준 실험교과서 지리(선택과목 3), 관광지리. 연변교육출판사.
- 정동주, 1999, 한·중 중학교 사회과(지리) 교과서 비교 연구, 사진지리, 8, 31-45, 한국사진지리학회.
- 최병두, 2006, 중국 연변지역 중등학교 지리 교과서 분석, 교육연구, 19~45, 대구대학교.
- 최운식·윤재욱, 2002,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지리 교과에서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6(2), 5-21,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2001, 역사·지리 교육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상호이해 증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1-4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개선방안연구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ORM 2006-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 사업 -중국, 연구자료 ORM 2010-61-10.
- 李春红, 2005, 对普通高中地理课程标准(实验)中“地理过程”的认识, 中学地理教学参考, 4.
- 白井哲之, 1998, 教員養成における地理教育の現状と課題, 地理學評論, 71(ser.A), 104-112.
- 袁书琪, 2005, 普通高中地理课程标准(实验)选修模块“旅游地理”解读, 中学地理教学参考, 4.
-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2003, 普通高中地理课程标准(实验), 北京师范大学出版社.
- 陈澄·刘兰·段玉山, 2004, 高中地理新课程的框架结构, 地理教学, 7.
- 浅香辛雄·山村順次, 1974, 觀光地理學, 大明堂.
- 諏訪哲郎, 2008, 한·일·중 의무교육단계에 있어서의 세계지리교육, 사회과교육연구 15(2), 149~170.
- Bao JG and Ma LJC, 2010, Tourism geography in China, 1978~2008: Whence, What and Whither?,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 (1), 3-20.
- Tang, M.-L., 2007, The Chinese Textbooks of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Evaluation and Constructive Suggestions, *Scientia Geographica Sinica*, 27(6), 859-864.
- Yang, D., 2011, A comparison of content in syllabus-based senior geography textbooks and standards-based senior geography textbooks in mainland China,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0(2), 121-138.
- 교신 : 강창숙, 362-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gaia2004@cbnu.ac.kr)
- Correspondence : Kang, Chang-Soo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362-763.
- (접수: 2016.01.28, 수정: 2016.02.20, 채택: 2016.02.25)